

民族資本형성에 先決問題

金龍星 国会保社分科委員長

『開發途上國에 대해 先進國家와 같은 社會福祉政策이나 公害對策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들 개발도상국가들로 하여금 永遠히 先進國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얘기나 다름 없다』

世紀의 未來學者 「허만칸」 박사의 말을 인용,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現實과 이에 따른 社會福祉政策 구현의 어려움을 이같이 비유한 金委員長은 『國民福祉向上과 直結되는 保社行政 자체가 近代化과정에서 派生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重壓感을 느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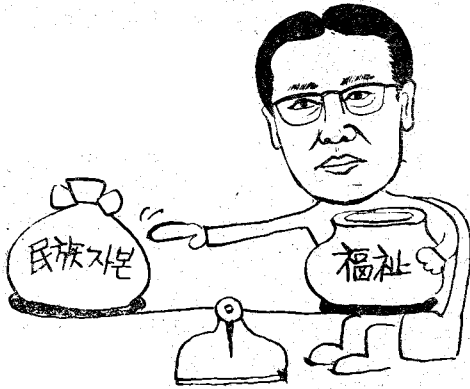
保社委員長職을 맡자마자 大麻法案이란 重大法案處理를 제 1 과제로 부여받았던 金委員長은 불과 이틀만에 아무런 어려움없이 이를 거뜬히 처리하는 수훈을 세워 역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保社委員會는 과거도 그랬으나 이번에 직접 운영을 해보니 여야간에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별로 없는것 같다』면서 自身이 前職野黨 출신이라 野黨議員들과도 오랫동안 人間的 유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常委運營이 벽에 부딪치거나 對話 「채널」에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서울 文理大 政治科在學 시절부터 學生운동에 가담, 좌·우익의 맹렬한 思想투쟁속에서 우익을 先導해왔던 그는 民主黨 창당때 창당 「멤버」로 입당, 故 趙炳玉박사의 秘書官으로 「피킵」되면서 본격적으로 政治무대에 발을 들

여 놓았는데 그 뒤 參議院議員, 舊新民黨院內副總務, 新民黨民主前線 편집인, 8代國會議員, 新民黨政務委員 등 野黨의 중추「멤버」로 활약하다가 9代國會때 在野「케이스」로 維政會議員으로 피선, 오늘의 權座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의 경력 속에는 파란도 많아 釜山政治 파동때와 民主前線 편집인시절의 유명한 5賊詩계 제사건으로 두번이나 投獄되는 곤욕을



치렀는데 刑量이 두번다 3개월 10일간이어서 『100일과는 무슨 기이한 인연이라도 있었나보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金위원장은 『政治·經濟的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美國과 日本인데 美·日の 社會福祉 政策수준을 오늘의 우리 現實에서 구가하려는 國民들의 성급한 기대는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려면 分配·福祉面에 중점을 두는 施策보다는 최대한

의 投資擴大로 民族資本을 축적, 育成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先進國 몇배 이상의 投資와 저축으로 經濟成長率도 그 몇배 이상으로 올려놓아야만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富의 創造가 가능한 것이지 資本形成도 되기전에 分配나 福祉 또는 향락을 선진국과 똑같이 누리려다보면 아무것도 되는것이 없어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리 國家日課는 假想敵인 소련과 中共을 견제할 수 있는 國力, 즉 富를 創出해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81년까지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담아놓은 重化學工業의 꿈을 성취시켜 90년대에 가서는 최소한 國民所得이 6천~1만달러 선에 이르게 될 때 사회복지문제, 公害對策등의 모든 정책도 효과적으로 실현되어 美國이나 日本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무턱대고 保社行政을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예산이 미치지 못할때는 國民運動을 통한 民間의 協力을 동원해서라도 의료행정·원호행정·노사임금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놀린 民族, 갇힌 民族, 가난한 民族으로부터의 解放』이란 자신의 理想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言行일치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信念.